

# 유가에 해상운임도 상승...광주·전남 산업계 '시름'

### 미국·이란 전쟁 여파...유조선 운임지수 55%로 급등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흐름 등 불확실성 커져

중동지역 지정학적 갈등 여파로 글로벌 해상·항공 운임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19면

특히 지역 수출 물류의 핵심 거점인 광양항을 중심으로 물류비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발틱해운거래소에 따르면 유조선지수(WS)는 지난 12일 기준 348.9로 집계됐다. 이는 전쟁 직전인 지난달 27일보다 55% 오른 수치로, 연초 대비 7배 가량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중국 노선의 27만급 유조선 운임도 역시 하루 32만6000달러 수준으로 전쟁 이전보다 약 50% 상승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물류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약 34.2%, LNG 교역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로, 이 지역 불안이 곧바로 국제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운임도 크게 뛰어 17만4000m급 LNG 운반선의 단기 운임은 하루 20만5000달러 수준으로 전쟁 이전보다 약 6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선 운임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주요 15개 항로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최근 1700선까지 올라 전쟁 이전보다 약 28% 상승했다.

항공 물류 시장도 중동 영공 통제와 항로 우회 영향으로 운임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제 항공권 가격도 10만원 이상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광주·전남지역 산업 구조와 맞물리며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남 동부권 산업 물류의 핵심 거점이자 철강과 석유화학, 자동차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수출 물류를 담당하는 항만인 광양항의 물동량 증가 흐름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광양항은 비컨테이너 화물 비중이 높은 항만으로, 이 영향으로 지난해 여수·광양항 전체 물동량은 석유화학·철강 산업 경기 둔화 등으로 최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전경.

사진제공=여수광양항만공사

1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체 비중은 작지만 약 200만 TEU로 회복세를 보이며 성장 흐름을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해상 운임 상승은 이러한 컨테이너 성장세에도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광양항의 지난해 컨테이

너 물동량은 약 206만 TEU로 전년대보다 2.4% 증가했으며, 수출입 물동량은 180만 TEU로 6.1% 늘었다.

이처럼 광양항의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하며 항만 물류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상황 속 최근 중동 지역 갈등에 따른 글로벌 해상 운임 상승이 겹치면서 성장세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권 산업은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 수출 비중이 높아 해상 물류 변화에 민감하다. 운임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출 물량 확대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운임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물류비 상승 부담을 그대로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광주지역 역시 자동차 부품과 전자·기계 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갖고 있어 물류비 변동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제 정세에 따른 물류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 산업계의 공급망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최근 광양항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며 항만 물류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동 지역 갈등으로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 수출 기업들의 물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전남 산업단지 기업들은 운송 경로 다변화와 물류비 관리 등 공급망 대응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만 물류 경쟁력과 안정적인 국제 항로 확보가 지역 수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중동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물류바우처 지원

### 중기부, 이달 20일부터 신청...기업 당 최대 1050만원 지원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긴급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불거진 중동 지역의 긴장감 고조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늘어나자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주요 물류 거점의 운항 차질로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전쟁위험 할증료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총 105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긴급 편성하고, 오는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먼저, 중동 특화 항목 신설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50만원(정부 보조율 70%)을 긴급 지원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지원 항목에 △전쟁 위험 할증료(WRS) △항만 폐쇄 등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로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도 추가했다.

올해 1차 수출 바우처에 선정된 기업도 중동 수

출 실적이 확인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신속심사제'도 도입한다. 분쟁에 따른 피해기업은 시기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 신청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 기업은 수출 실적과 피해 증빙만으로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확정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20일부터 '수출바우처 전용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상세 문외는 수출바우처 민원안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비 부담을 덜고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기아-토탈에너지스, 글로벌 파트너십 연장

### 5년 단위 계약으로 2031년까지 신뢰 기반 장기 협력

기아는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 운할유(토탈에너지스)와 오는 2031년까지 5년 단위의 파트너십 계약을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처음 파트너십을 맺은 양사는 이번 재계약으로 20년간 장기적인 협력을 이어가게 됐다. 두 회사는 지금까지 5년 단위로 3차례 재계약을 했다.

기아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 오산교육센터에서 토탈에너지스와 5년 단위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 연장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체결식에는 기아 활동관 오너십관리사업부장(상무), 토탈에너지스 엘로디 루스 자동차부문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토탈에너지스는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글로벌 석유·천연가스 기업으로 전 세계 120여개 국에 진출해 있다.

토탈에너지스는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앞으로 5년간 고품질 엔진오일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기아의 전 세계 고객, 딜러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고객만족도 개선 및 서비스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아와 지난 15년간 실시한 공동 프로젝트와 마케팅 역시 이어간다.

이 밖에도 두 회사는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전



사진 왼쪽부터 기아 활동관 오너십관리사업부장, 토탈에너지스 엘로디 루스 자동차부문 부사장.

환경차 부문에서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활동관 기아 오너십관리사업부장은 "토탈에너지스는 지난 15년간 기아의 소중한 파트너였다"며 "이번 재계약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기아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현대차, 대규모 채용...171개 전 부문 홈페이지서 접수...신입·경력 인제

현대자동차는 오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공식 채용 홈페이지에서 대규모 채용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신입·경력 인재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IT 등 전 부문에 걸쳐 이뤄진다. 채용 공고는 171개에 달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열정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미래형 인재를 선발해 모빌리티 혁신을 함께 만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신입 특별 채용을 동시에 운영해 균형 잡힌 채용 기조를 이어나간다.

또 오는 25일에는 지원자의 직무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자동차 채용 유튜브 채널에서 '팀 현대 토크 라이브'를 진행한다.

이날은 현대차 인사 담당자가 직무와 채용 절차 등을 소개하고 지원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팀 현대 토크 라이브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접속 가능하며 22일까지 현대차 공식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 미래 경쟁력의 출발점이 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와의 만남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열정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채용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모셔널, 우버와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 개시

###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작...지역 확대·무인 운행도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우버와 함께 아이오닉 5를 이용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운영 지역은 리프트 월드 라스베이거스 등 라스베이거스대로 주변 지정 호텔, 다운타운, 타운스퀘어 상업지구 등이며, 모셔널은 이용 가능한 지역을 지속 확장에 나갈 예정이다.

우버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한 고객의 경로가 이번 서비스 운영 구역에 포함되면 모셔널 아이오닉 5 로보택시가 자동으로 배차된다.

로보택시가 배차된 고객은 별도 추가 비용 없이 일반 호출 차량과 동일한 가격으로 로보택시를 이용하거나 일반 차량으로 재배차를 요청할 수 있다.

로보택시가 픽업 장소로 도착하면 승객은 우버 앱을 통해 차량 문을 열고 탑승할 수 있다. 승객이 탑승하면 환영 메시지와 안전벨트 착용 안내 등이 음성으로 안내하며, 만약 이동 중 도움이 필요한 승객은 언제든지 우버 앱을 통해 상담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셔널과 우버는 2022년 체결한 10년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과 수백만 이용자 네트워크를 결합하며 자율주행 대중화를 가속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모셔널과 우버는 자율주행 차량 운영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모셔널 로보택시는 우버에서 제시한 모든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우버와 함께 시범 서비스 중인 모셔널 아이오닉 5 로보택시.

## 현대차, 독일 다투르부르크링에 EV 급속 충전소 개소

### 서킷 내 최인접 위치에 N 급속 충전소 구축...편의성 향상

현대자동차가 독일 다투르부르크링 서킷 내에 전기차(EV) 급속 충전소를 열었다.

현대차는 지난 14일(현지시간) 고성능 브랜드 '현대 N'이 독일 다투르부르크링 노르트슐라이페 서킷에서 ' 다투르부르크링 N 급속 충전소'를 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녹색 지속'이라고 불리는 다투르부르크링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주행 트랙으로 손꼽히며 자동차 마니아들의 성지로 사랑받는 서킷이다. 현대차는 다투르부르크링 서킷 내 일반 고객들이 트랙 주행을 위해 진입하는 '투어리스트 드라이브' 입구에 위치한 주차장에 이번 N 급속 충전소를 구축했다.

고성능 전기차의 우수한 성능을 트랙 위에서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고속 충전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이번 N 급속 충전소 개소로 충전 편의성이 대폭 향상돼, 다투르부르크링의 EV 운전자는 서킷 입구에서 충전한 직후 바로 트랙 주행을 나설 수 있게 됐다.

현대차는 올해 다투르부르크링 서킷 트랙 시즌 개

막에 맞춰 이달부터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N 급속 충전소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브랜드 관계없이 모든 EV 차량을 충전할 수 있다.

현대차는 충전소 서비스 안정화 및 고객화를 거친 뒤, 4월부터 '차지 마이현대' 앱을 이용하는 유럽의 아이오닉 5 N, 아이오닉 6 N 고객에게 해당 충전소 한정 무료 충전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N 급속 충전소는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운영된다.

박준우 현대차 N매니지먼트실장(상무)은 "현대차는 아이오닉 5 N과 아이오닉 6 N으로 고성능 전기차의 가능성을 증명할 데 나아가 트랙 위에서 고성능 경험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N 급속 충전소를 구축했다"며 "다투르부르크링 서킷의 자동차 팬들이 충전 걱정 없이 '녹색 지속'을 달릴 수 있도록, 현대차는 더 많은 고객들이 전통화 시대에도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고성능 전기차 생태계 확장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